

‘포커스’ 우승 신예원 “상금은 부모님께… 친구 같은 가수 될 것”

스무살에 짙은 블루스 감성 갖는 압도적인 성량

정확한 가사 전달·안정된 기타 실력이 돋보여

결선 첫 무대에서 자작곡 ‘언어와 가시고기’로 호평

두 번째 무대에서 감정 폭발쳐 가사 온전히 전하지 못해

케이클 음악채널 넷백의 포크송 경연 프로그램 ‘포커스’의 우승자는 신예원(20)이었다. 지난달 22일 종방한 이 프로그램 방송 내내 그녀는 강력한 우승후보였다. 불과 스무살의 나이에 짙은 블루스 감성이 갖는 압도적인 성량에 정확한 가사 전달, 안정된 기타 실력이 돋보였다.

결선 첫 번째 무대에서 부모를 위해 쓴 자작곡 ‘언어와 가시고기’로 호평을 들었다. 두 번째 무대에서 한영애의 ‘바람’을 부르던 중 감정이 폭발쳐 가사를 온전히 전하지 못했지만, 그런 모습이 시청자의 마음을 더 뭉클하게 만들었다.

우승 이후 신예원을 서면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원 씨가 우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혹시 경연 과정에서 위기나 슬럼프가 찾아온 때가 있었나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조합 배틀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무대를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합 배틀 때 우짜미(우주왕복선사이드미러) 분들과는 서로 상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연주도 해 보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과 동시에 머리가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선곡과 편곡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스스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마음을 다잡고 매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포크 기반에 블루스 색깔이 짙게 배어 있어

요. 스무살에 어떻게 그런 노련한 감성을 발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원 씨의 음악 뿌리는 어떤 장르이고 어떤 뮤지션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블루스, 펑크(Funk), 알앤비, 솔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음악들을 들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 분들은 김광석 선생님, 양희은 선생님, 김현식 선생님이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 또한 포크라고 할 수 있어요. 뿌리와 나무가 포크라면 그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제가 하고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 장르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산애, 들국화, 산울림, YB 같은 포크록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받는 영감은 모두 포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원 씨가 열 살 때 기타를 선물해주셔서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흥미가 생긴 것으로 압니다. 기타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나요?

“기타의 줄이 튕겨지는 소리를 좋아하게 됐어요. 여섯 개의 줄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고, 이야기 하듯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피아노와는 또 다른 매력이라는 걸 느끼게 됐고, 처음에는 기타 연주자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래에도 매력을 느끼게 되어 노래로 진로를 바꾸게 됐는데, 그래도 기타는 떼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작곡 ‘언어와 가시고기’ 무대를 선보인

뒤 부모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셨을 거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이 노래를 들으시고는 저희 집 벽에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몇 장 붙어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언제 이만큼 컸냐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항상 울컥하고 뿌듯해요.”

-보컬의 목소리, 기타 한 대만으로도 노래가 완성되는 포크는 코로나19 시대의 거리두기에 적합한 장르로 통합니다. 아이들과 트로트로 양분된 대중음악계의 다양성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 이제 포크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970년대 세시봉을 중심으로 포크가 전성기였잖아요?

“포크라는 음악 장르만큼 순수하고 감동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포크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순수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포크는 동화책’보다, 정확하게 포크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크의 시대도 다시 곧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 포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예전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 SBS TV ‘판타스틱 듀오’에서 듀엣한 ‘자우림’의 김윤아 씨가 이번 ‘포커스’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섰는데, 윤아 씨는 다시 만난 기분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뽀미 전부터 심사위원으로 계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떨었는데 막상 뽀미가 반가운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때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끝까지 좋게 봐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열여덟 살 때인 지난 2018년 ‘제4회 김현식 가요제’에서도 우승했습니다. 김현식 씨의 유명한 곡이 아닌 숨겨진 명곡으로 통하는 ‘한밤중에’를 커버했더라고요.

-코로나19는 특히 인디 가수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예원 씨도 큰 타격을 입었죠? 본인이나 주변 뮤지션들은 어떤 점이 힘들었나



“우연히 ‘김현식 가요제’를 한다는 광고문을 보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김현식 선생님의 ‘내사랑 내곁에’라는 곡밖에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곡이었기 때문에 꼭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출전하게 됐는데, 막상 경연곡을 고르려고 하다보니 그 곡보다 더 좋은 곡들이 많더라고요. ‘한밤중에’라는 곡은 저희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많이 들으셨던 곡이었어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외로웠을 모두를 위해 ‘한밤중에’를 선택했죠. 이 경연 역시 저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었죠. 무엇보다 열여덟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저를 믿고 우승이라는 상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가수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창작이었어요. 이 고민은 음악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좋은 분들에게서 써주시는 가사와 멜로디도 너무 좋지만 제 손으로 쓴 곡들도 많이 불러보고 싶었거든요. 선뜻 제가 만든 곡을 들려드리지 못하고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포커스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코로나19는 특히 인디 가수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예원 씨도 큰 타격을 입었죠? 본인이나 주변 뮤지션들은 어떤 점이 힘들었나

요? 어떤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나요?

“제가 많은 뮤지션분들을 대변할 수 없고, 감히 그 분들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음악은 현장감이 중요하데, 그 현장감이 없다 보니 느껴지는 감동이나 울림 또한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수분들께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고, 미뤄지게 되다 보니 지쳐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꿈을 포기하는 아티스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상금(1억원)으로는 무엇을 하고 싶나요?

“받은 상금은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지원할 때부터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원 씨가 생각하는 좋은 목소리, 좋은 노래, 좋은 뮤지션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나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주고, 곁에 머물며 친구 같은 가수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뮤지션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 받는 뮤지션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김영광·이선빈, 코믹 액션 공조 ‘미션 파서블’

이번달 개봉 예정

배우 김영광이 코믹 액션 영화 ‘미션 파서블’로 액션에 처음 도전했다고 밝혔다. 김영광은 1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션 파서블’ 제작보고회에서 “액션은 첫 도전”이라며 “영화 후반부에 액션이 많이 나온다. 액션을 하면서 자사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미션 파서블”은 선임급 후임부 흥신소 사장 ‘우수한’과 열정 총만 비열 원형 ‘유다희’가 무기 밀매 사건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공조하다 벌어지는 아찔한 코믹 액션이다. 김영광은 “미션 파서블”은 코믹 액션 영화다. 코믹도 좋아하고 액션도 해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다”며 “제가 맡은 ‘우수한’ 캐릭터를 다른 인물로 설정하기보다는 제 성격과 비슷하게 편하게 연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장에서 대역 없이 액션을 모두 소화했다. 김영광은 “직접 거의 다 액션을 했다. 2주 정도 몰아서 액션을 찍었는데 3-4일쯤 되니까 다리가 무거워지더라. 제가 힘들어하니 감독님이 중간에 하루 정도 여유를 주셔서 좋았

다”고 떠올렸다. 김형주 감독은 “김영광 배우는 대역에 의존하기가 어려웠다. 액션 장면은 체력 소모가 커서 본래 대역을 쓰는 게 정상인데, 김영광 배우는 키나 몸매라인이 비슷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김영광 배우가 100% 모두 짚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선빈도 “제가 해왔던 작품들과 또다른, 색다른 액션이었다”며 “(기존에 보여줬던 액션과) 많이 달랐다. 일단 장소가 특별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액션 합을 맞춰봤지만, 손에 족발이 들려있고 페트병이 들려있는 건 처음이었. 진지한 액션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소품을 활용해 액션을 했던 게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밝혔다. “미션 임파서블”을 연상시키는 제목은 그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김형주 감독은 “대중들이 봤을 때 제목만 봐도 영화 장르를 느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재밌게 지었다”며 “미션 임파서블과 전혀 관계 없다. 제목이 주는 영어 단어의 의미, 거기에 포인트를 준 것이고 독립적인 작품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션 파서블”은 2월 개봉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역대 최고 10대 그룹’

美 에스콰이어 선정

K팝 간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 ‘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미국 잡지 에스콰이어는 1월31일(현지시간) 대중음악계 역대 최고의 10대 그룹에 방탄소년단이 포함했다고 밝혔다. 에스콰이어 선정 10대 밴드에는 방탄소년단, 비틀스, 퀸 외에도 ‘서프 뮤직’의 대표 주자인 미국 로큰롤 밴드 ‘비치 보이즈’, 스웨덴 출신 세계적 팝그룹 ‘아바’, 영화 ‘드림걸즈’의 실제 모델인 흑인 3인조 여성 그룹 ‘슈퍼스트림’ 등

도 들었다. 또 브리티시 블루스 밴드 ‘플리트우드 맥’, 미국의 펑크록 그룹 ‘슬라이 앤 패밀리스톤(Sly & The Family Stone)’, R&B 그룹 템페이션스, 팝 슈퍼스타 비온세가 활약한 ‘데스티니스 차일드’도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에스콰이어는 “방탄소년단은 K팝의 세계적인 성공에 선봉에 섰다”며 “아미(ARMY)라는 강력한 팬을 기반으로 팬덤, 보이그룹의 개념을 재정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에스콰이어는 지난해 말 발행한 ‘윈터(Winter) 2020/21’의 커버 모델로 방탄소년단을 선정하기도 했다.



아이유, 영화 ‘브로커’ 합류...송강호·강동원·배두나와 호흡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연출 한국영화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는 한국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다. 1일 영화사 집은 “아이유가 최근 ‘브로커’의

출연을 결정했다”며 “배역 등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로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 익명으로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

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앞서 배우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의 출연이 확정됐다. ‘브로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국내 제작진이 5년 전부터 구상해 온 작품으로 올해 상반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스트롯2’ 전국투어, 4월 서울부터 13개 도시

준결승 진출자 포함 화제의 출연자들 총출동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전국투어 콘서트가 열린다. 1일 콘서트 제작사 쇼플레이에 따르면, ‘미스트롯2’ 전국 투어는 오는 4월 9-11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전국 13개 도시 투어를 진행한다.

앞서 ‘내일은 미스트롯’, ‘내일은 미스트롯’ 콘서트가 티켓오픈 당시 오픈 10분 만에 매진되는 등 지난 시즌이 인기를 누리고 있어 이번 새 시즌 전국 투어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미스트롯2’ 역시 시청률 30%를 넘나들며

고공행진 중이라 전 시즌의 성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국 투어에는 준결승 진출자를 포함한 화제의 출연자들이 총출동한다. 이와 함께 ‘미스트롯2’ 전국투어 콘서트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을 지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